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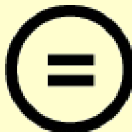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어 보조사 교수 학습 방안 연구

- ‘만큼, 처럼, 같이’를 중심으로 -

2013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한 송 윤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고창수

한국어 보조사 교수 학습 방안 연구

- ‘만큼, 처럼, 같이’를 중심으로 -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of auxiliary
propositional particles of the Korean language
-focusing on ‘mankeum, cheoreom, kachi’-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한 송 윤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고창수

한국어 보조사 교수 학습 방안 연구

- ‘만کم, 처럼, 같이’를 중심으로 -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of auxiliary
propositional particles of the Korean language.

-focusing on ‘mankeum, cheoreom, kachi’-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한 송 윤

한송윤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한국어 보조사 교수 학습 방안 연구

- ‘만큼, 처럼, 같이’를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국어교육전공

한 송 윤

본 연구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처럼, 같이’의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어 보조사 중에서 ‘만큼, 처럼, 같이’는 동등비교의 표현에 쓰이며, 비유표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보조사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특징을 효과적으로 교수하고 학습하도록 하여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비교와 비유의 개념을 정의하고, ‘만큼, 처럼, 같이’의 비교 표현 용법의 특징을 선행어의 의미적 특징, 서술어의 의미적 특징, 정도부사의 공존 여부, 중의성의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비유표현 용법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국내 5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만큼’, ‘처럼’, ‘같이’를 한국어 교재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급수별 수록 단계는 적절한지, 제시 형태는 어떠한지, 설명은 적절한지, 연습 문제는 실제 담화 상황을 반영하여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만큼’, ‘처럼’, ‘같이’의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문법 항목의 등

급화의 기준이 되는 ‘일상 언어생활에서의 사용 빈도’와 ‘난이도’를 고려할 때, 비교와 비유의 의미를 가지는 ‘만큼’, ‘처럼’, ‘같이’는 초급 후반(2급) 정도의 단계에서 함께 제시하여 그 의미와 유사점, 차이점 등을 알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 교수 학습 안을 제시하였다.

‘비교’와 ‘비유’를 학습 단원으로 하여 전체 3차시 수업으로 구성하고 1차시에는 ‘만큼’의 비교표현을, 2차시에는 ‘처럼’, ‘같이’의 비교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고, 3차시에는 ‘만큼’, ‘처럼’, ‘같이’의 비유표현을 교수 학습하는 것으로 하였다.

‘처럼’과 ‘같이’는 의미, 용법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처럼’의 교수 학습 안을 제시하면서 ‘같이’를 같은 의미와 용법을 갖는 유의어로 교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5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하여 요약하고 한계점을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주요어】 한국어 보조사, 교수 학습 방안, 만큼, 처럼, 같이, 비교, 비유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제 3 절 선행 연구	2
제 2 장 의미와 용법	6
제 1 절 비교와 비유의 개념	6
제 2 절 비교표현 용법	7
1. 선행어의 의미적 특징	7
2. 서술어의 의미적 특징	10
3. 정도부사의 공존 여부	11
4. 중의성	13
제 3 절 비유표현 용법	16
1. ‘만큼’의 비유 의미 특징	16
2. ‘처럼’의 비유 의미 특징	18
3. ‘같이’의 비유 의미 특징	19
제 3 장 한국어 교재 분석	21
제 1 절 경희대 교재 분석	22
제 2 절 고려대 교재 분석	26
제 3 절 서울대 교재 분석	32
제 4 절 연세대 교재 분석	35
제 5 절 이화여대 교재 분석	39

제 4 장 교수 학습 방안	44
제 1 절 교수 학습 방안 개요	44
제 2 절 ‘만큼’의 비교표현 교수 학습 방안	45
제 3 절 ‘처럼, 같이’의 비교표현 교수 학습 방안	51
제 4 절 ‘만큼’과 ‘처럼, 같이’의 비유표현 교수 학습 방안	54
제 5 장 결 론	59
【참고문헌】	61
ABSTRACT	63



HANSUNG
UNIVERSITY

【 표 목 차 】

[표 1-1] 급수별 수록 단계와 제시 형태	22
[표 1-2] 설명 방식	22
[표 1-3] 연습 문제의 양상	23
[표 2-1] 급수별 수록 단계와 제시 형태	26
[표 2-2] 설명 방식	27
[표 2-3] 연습 문제의 양상	29
[표 3-1] 급수별 수록 단계와 제시 형태	32
[표 3-2] 설명 방식	32
[표 3-3] 연습 문제의 양상	33
[표 4-1] 급수별 수록 단계와 제시 형태	35
[표 4-2] 설명 방식	35
[표 4-3] 연습 문제의 양상	36
[표 5-1] 급수별 수록 단계와 제시 형태	40
[표 5-2] 설명 방식	40
[표 5-3] 연습 문제의 양상	4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만큼, 처럼, 같이’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큼, 처럼, 같이’는 그 의미적 특성에 있어서 동등 비교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또한 비교표현뿐만 아니라 비유표현을 나타낸다는 점에 있어서도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점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들 보조사의 차이점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고 그 용법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큼, 처럼, 같이’의 공통적인 특징을 밝히고, 각각의 의미와 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교재에서는 이들 보조사들을 어떻게 교수하고 있는지 그 방법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보조사에 대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 2 절 연구 대상 및 방법

한국어에서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말은 ‘와’, ‘만’, ‘보다’, ‘만큼’, ‘처럼’, ‘같이’가 있다. 이 중에서 ‘-와’는 기본적으로는 공동격 조사로서 기능하는데(고창수(2007), 성광수·박희숙(1979), 임동훈(2004)), 주로 비교하다, 비슷하다, 같다, 다르다 등의 동사, 형용사와 함께 쓰여 비교의 대상이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낸다(국립국어원 2005:598). 다시 말해 ‘-와’는 그 자체만으로 비교의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결합하는 동사나 형용사의 뜻에 의하여 비교의 의미가 부가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와’는 기본적으로 격조사(공동격)로서 기능하며 그 자체로서 비교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의 의미를 지닌 보조사로 볼 수 없다.

‘만’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것을 배제하고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만’이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주로 ‘하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앞말이 비교 대상임을 나타낸다(국립국어원 2005:497). 즉 ‘만’은 그 자체만으로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며, ‘하다’, ‘못하다’ 중에서 어느 서술어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동등 혹은 차등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만’은 동등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사에서 제외한다.¹⁾

‘-보다’는 앞말이 비교의 대상임을 나타내며, 비교 구문은 정도의 크기를 비교하여 이들이 ‘차등’한 관계를 가짐을 나타낸다(오경숙 2010:129). 따라서 ‘-보다’는 동등비교 보조사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등비교와 비유의 의미를 지니는 ‘만큼, 처럼, 같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의미와 용법을 비교와 비유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또한 현재 국내 대학의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주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들을 대상으로 방법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교수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적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3 절 선행 연구

비교와 비유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비교와 비유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 통사적인 특성만을 고찰한 경우와 비교와 비유를 구분하여 의미적인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논의가 있다. 전자에는 김봉모(1990), 정인수(1999), 임채훈(2002) 등이 있고, 후자에는 하길중(1998), 오경숙(2005), 나은미(2011) 등이 있다.

김봉모(1990)는 견준이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 또는 사물의 잘 알려지지 아니한 막연한 사실에 대하여, 들을이에게도 비교적 익숙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비교하여 그 유사성이나 차이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고, 따라서 비교 또는 동일시되는 정도성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1) ‘만’은 대체로 비교 주체가 비교 대상에 비해서 더 정도성이 높은 것에서 비교되는 유사 동등이 아니라 비교 대상에 비해서 그 정도성이 낮은 유사 동등이 된다고 보았다. ‘만’이 연결되는 표현은 비교되는 대상과 주체의 사물에 대해서 ‘같음’에 대해서 제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하길중 1998:332).

‘만큼’, ‘처럼’, ‘같이’를 모두 ‘견준’이라는 뜻에 포괄된다고 보고 견준 표현이란 궁극적으로 견준의 주체가 가진 어떤 부분적 특성이 견준의 대상이 가진 그 특성을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정인수(1999)는 ‘만큼’ 구문과 ‘처럼’ 구문을 중심으로 동등 비교 형용사 구문에서 비교어구와 기준어구가 척도에서 어떤 위치에 속하는가, 비교어구와 기준어구 사이의 정도 차이가 어떤가 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임채훈(2002)은 ‘-처럼’, ‘-만큼’을 포함하는 구문의 비유적 표현에 주목하여 ‘-처럼’ ‘-만큼’ 등을 비유부사어로 칭하고, 다른 부사어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유부사어의 실현 양상과 타 문장 성분과의 관계에 대해 논하였다. ‘-처럼’, ‘-만큼’은 서술어의 자체 의미를 보장하는 수식어의 특성을 가지는데, ‘-처럼’은 서술어에 성상적 의미를 부가하며 ‘-만큼’은 정도적 의미를 부가하는 특성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들 부사어는 부사와 달리 문장 성분과 관련을 맺으며 문장 의미를 구성하는데, 어느 문장 성분과 관계하느냐에 따라 비유부사어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길중(1998)은 지금까지 ‘비교’와 ‘비유’는 구분되지 않고 대체로 비교구문에 비유구문을 포함하였음을 지적하고, ‘-처럼, -같이, -만큼, -만, -듯’이 연결된 유사 동등 비교구문과 비유구문(직유)은 외적 동형성을 이루고 있지만, 그 의미의 특성은 다르다고 보았다. 즉, 비교표현은 ‘같음’과 ‘다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비교되는 두 대상은 의미자질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비유는 견주는 두 대상 사이에서 사전적 의미에 의한 공통 의미자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연상의미에 의한 공통자질을 찾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비교표현은 비교기준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비유표현은 비유기준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비교표현에 연결된 서술어의 의미는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하게 되나 비유표현은 대체로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어휘가 서술어로 오게 된다고 보았다.

오경숙(2004)은 ‘-만큼’에 의한 비교구문과 ‘-처럼’에 의한 비교구문이 ‘동등비교구문’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다루어져 온 그동안의 비교구문에 대한 연구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만큼’에 의한 비교구문과 ‘-처럼’에 의한 비교구문의 이질

성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 첫 번째 근거는 ‘-만큼’ 비교구문이 나타내는 비교는 정도성과 긴밀히 관련된 비교이고 ‘-처럼’ 비교구문이 나타내는 비교는 정도성과는 관련 없는 사건·상태를 비교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근거는 ‘만큼’ 후치사구는 후행하는 정도성 표현의 의미를 한정하는 성분부사어의 기능을 하는데 반해 ‘처럼’ 부사구는 문장부사어로서 기능하기도 하고 성분부사어로서 기능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나은미(2011)는 ‘-만큼’과 ‘-처럼’의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인 서술어의 특성을 통해 이들의 의미 특성을 고찰하였다. ‘만큼’은 선행 요소로 측정성 어휘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체적인 존재 양상을 표현하는 선행 요소와 결합 제약이 있는 반면, ‘-처럼’은 구체적인 존재 양상을 드러내는 선행 요소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으며, 측정성 어휘와는 결합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만큼’은 서술어의 의미 등급을 한정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어휘 내부에 등급을 가질 수 없는 상보대립어와 결합 제약이 있고 ‘-처럼’은 서술어에 대한 의미 등급을 한정하는 기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서술어에 대한 결합 제약이 없다고 하였다. 비유 표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만큼’이 결합되면 양적 비유표현으로 실현되며 ‘-처럼’이 결합되면 양상 비유표현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한국어 보조사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들 중에서 임삼미(2009), 신보라(2012), 조양(2012)는 ‘도, 까지, 조차, 마저’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서 임삼미(2009)는 말뭉치 분석을 통해 이들 보조사의 빈도수에 따른 의미자질과 변별적 특징을 살피고,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산출된 한국어 학습자들의 쓰기 작문 자료를 통해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재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포함] 이라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이들 보조사를 효과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교수 모형을 제시하였다.

신보라(2012)는 ‘도, 까지, 조차, 마저’를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특수조사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각각의 의미와 용법을 고찰하고, 한국어 교재에서의 제시 양상을 제시 및 설명의 적절성, 담화 상황에서의 적절성, 연습의 적절성을 분석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고 그 교육 방안을 수업모형과 함께 제시하였다.

조양(2012)은 ‘도’, ‘까지’, ‘마저’, ‘조차’의 특성에 대한 분석과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자료의 오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을 토대로 한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경미(2009)는 한국어와 우르드어의 대조분석 연구와 파키스탄 학습자의 오류분석 연구를 통하여 파키스탄 초급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수 학습 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방안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민지(2012)는 보조사 ‘는’의 교육이 초급 단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도 교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혜(2012)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한국어 보조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각 보조사 항목에 대한 의미 기능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표현을 분석하고 한·중 교재에서의 보조사 기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보조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신인(2010)은 분석 대상 보조사를 ‘은/는’, ‘도’, ‘만’, ‘까지’로 한정하여 이들 보조사를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분석하고 텍스트 기반으로 한 교수 학습 내용을 설계하였다.

박주현(2011)은 양태성 보조사((이)나마, (이)라도, 도, 마저, 조차, (이)야, (이)야말로, (이)나, (이)라야, 까지)를 인식 양태와 판단 양태로 분류하고 교재들이 양태성 보조사를 학습자들이 이해 가능하게 설명,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양태성을 활용한 교수 학습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와 비유는 의미적인 특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그동안 한국어 교육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처럼, 같이’의 비교표현과 비유표현의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제 2 장 의미와 용법

제 1 절 비교와 비유의 개념

비교와 비유를 의미적인 면에서 구분하는 견해에 따라 비교표현과 비유표현을 구분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길종(1998)은 비교표현은 ‘같음’과 ‘다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비교되는 두 대상은 의미자질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비유표현은 견주는 두 대상 사이에서 사전적 의미에 의한 공통 의미자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연상의미에 의한 공통자질을 찾는 것으로, 연상의미에 의한 공통자질을 찾을 수 있다면 견주는 기준에 대해서 ‘같음’과 ‘다름’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견주는 대상의 특성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오경숙(2005:319)은 비교와 비유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비교는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과 관련지어 두 대상의 사실적_관계를 판단하는 행위이고 비유는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과 관련지어 두 대상의 관념적 관계를 판단하는 행위이다.’라고 하였다. 비유는 비교구문이 나타내는 비교 의미의 특수한 유형으로 보고, 비교구문이 비유를 나타내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두 대상 가운데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이 [-특정성] 자질을 가지고 있고 그 대상과 관련된 고정화된 관념이 있어야 하며 둘째, 사실 세계에서 동질적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두 대상이 동일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은미(2011)에서는 비교표현과 비유표현을 구분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인식 주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즉, 비교표현은 견준의 결과를 드러낸 것이고 비교표현과 달리 비유표현은 견준 주체의 존재 양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비교표현과 비유표현을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으로 인식 주체가 두 대상을 동질적이라고 판단하는가 이질적이라고 판단하는가라고 하였다. 동질성이 중요한 이유는 비교표현이 공평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두 대상을 견주기에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교표현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와 비유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첫째, 견주고자 하는 두 대상 즉 비교 주체와 비교 대상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비교 주체와 비교 대상이 동질적인 것이면 비교표현으로 보고, 이질적인 것이면 비유표현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 동질성 여부의 판단은 어휘 의미적 자질에 따르기 보다는 각각의 특징적인 변별적 자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두 대상을 견주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두 대상의 같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교로 보고, 견주는 주체의 양태를 견주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에 빗대어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유로 보는 것이다. 비유표현으로 보기 위한 기준으로 비유 대상은 비특정적이어야 하며, 서술어로 표현된 그 대상의 속성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특성이어야 한다.

제 2 절 비교표현 용법

‘만큼’, ‘처럼’, ‘같이’가 용법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만큼’은 정도성을 표현하는데 쓰이며 ‘처럼’과 ‘같이’는 양태를 표현한다는 것이다.²⁾ 이러한 차별성으로 인해 이들이 결합하는 선행어나 서술어, 정도부사의 공존 여부에 차이를 보인다.

1. 선행어의 의미적 특징

1) 만큼

‘만큼’이 결합하는 선행어의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만큼’ 구문과 ‘처럼’ 구문의 의미적 특징을 비유와 비교로 구분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처럼’, ‘-만큼’이 결합하는 명사의 제약에 대해, ‘-만큼’은 서술어에 정도의 의미를 부가하므로 결합하는 명사가 수량적인 개념으로 환산 가능해야 한다고 하고, 반면 ‘-처럼’은 서술어에 성상의 의미를 부가하므로, 결합하는 명사가 성상적인 개념으로 환산 가능해야 한다고 한다(임채훈 2002:215).

- (1) ㄱ. 저 빌딩은 30층 아파트 높이만큼 높다.
 ㄴ. 동생이 형의 키만큼 크다.
 ㄷ. 아들이 185cm만큼 자랐다.
- (2) ㄱ. 지수가 소희만큼 예쁘다.
 ㄴ. 자동차가 기차만큼 빠르다.
 ㄷ. 아이가 어른(*만큼) 행동한다.

(1ㄱ, ㄴ)에서는 ‘만큼’이 ‘높이, 키’와 같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어휘들에 결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ㄷ)에서는 ‘만큼’이 구체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선행어에 결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만큼’이 결합하는 선행어로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성을 가지는 어휘와 수치명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ㄱ, ㄴ)의 예에서 ‘만큼’의 선행어인 ‘소희, 기차’는 (1)의 예문들과는 달리 정도성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 어휘들이 결합한 ‘만큼’ 구문은 비교의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만큼’이 결합하는 선행어는 정도성을 지니지 않는 어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2ㄷ)과 같은 문장에서는 선행어가 정도성을 지니지 않는 어휘이나 ‘만큼’의 결합은 부자연스럽다. ‘만큼’의 선행어로서 정도성을 지니지 않는 어휘도 가능하다는 점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2ㄱ, ㄴ)에서는 서술어인 ‘예쁘다’ ‘빠르다’가 정도성을 가지는 단어이므로 ‘만큼’의 선행어가 정도성을 가지지 않는 단어가 결합하여도 전체의 문장에서 ‘만큼’ 구문의 정도성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만큼’ 구문의 선행어가 정도성을 지니지 않는 경우의 제약은 문장 전체의 의미가 정도성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처럼

‘처럼’이 결합하는 선행어의 의미적 특징은 비정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동등비교의 의미를 지닌 ‘만큼’ 구문과 구별되는데, ‘처럼’ 비교구문은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주체의 양태 등을 비교하는 의미를 지

니기 때문이다.

- (3) ㄱ. 그 아이는 어른처럼 행동한다.
 ㄴ. 지수가 소희처럼 예쁘다.
- (4) ㄱ. 저 빌딩은 30층 아파트 높이(만큼/*처럼) 높다.
 ㄴ. 동생이 형의 키(만큼/*처럼) 크다.
 ㄷ. 아들이 185cm(만큼/*처럼) 자랐다.

(3)의 예문들에서는 각각 ‘어른’, ‘소희’와 같은 비정도성 어휘에 ‘처럼’이 결합한 예이다. (3ㄴ)과 같은 문장에서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만큼’의 결합도 가능한데 ‘만큼’ 구문이 예쁜 ‘정도’에 중점이 있다면 ‘처럼’ 구문은 예쁜 ‘양태’에 중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ㄱ, ㄴ, ㄷ)의 예문에서 ‘높이’, ‘키’와 같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어휘들이 선행할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큼’의 결합은 자연스러우나 ‘처럼’의 결합은 자연스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85cm’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명사의 경우에도 ‘처럼’ 구문의 선행어로서 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처럼’은 그 선행어로서 비정도성 어휘만이 결합 가능하다는 것이다.

3) 같이

‘같이’ 구문은 ‘처럼’ 구문과 그 의미와 기능 면에서 유사하다. ‘같이’ 구문은 ‘처럼’ 구문과 마찬가지로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주체의 양태 등을 비교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 (5) ㄱ. 그 아이는 어른(처럼/같이) 행동한다.
 ㄴ. 지수가 소희(처럼/같이) 예쁘다.
- (6) ㄱ. 저 빌딩은 30층 아파트 높이(만큼/*처럼/*같이) 높다.
 ㄴ. 동생이 형의 키(만큼/*처럼/*같이) 크다.
 ㄷ. 아들이 185cm(만큼/*처럼/*같이) 자랐다.

즉, ‘같이’ 구문은 ‘처럼’ 구문과 마찬가지로 선행어의 의미적 특징으로서 ‘비
정도성’을 지닌 어휘에 결합하며, 정도를 나타내는 어휘나 수치명사와는 결합
할 수 없다. 또한 비교표현에서는 비교주체와 대상이 동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2. 서술어의 의미적 특징

1) 만큼

‘만큼’ 구문에 결합하는 서술어의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도
를 한정하는 ‘만큼’ 구문의 특성상 서술어에도 정도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와야
한다. 즉 정도나 등급을 나타낼 수 있는 반의대립어인 크다/작다, 많다/적다,
덥다/춥다 등은 올 수 있으나 개념적 영역을 양분하는 상보대립어인 출석하다
/결석하다, 합격하다/불합격하다, 도착하다/출발하다 등은 올 수 없는 것이다.

- (7) ㄱ. 이 공이 저 공만큼 크다./작다.
 ㄴ. 오늘은 어제만큼 춥다./덥다.

- (8) ㄱ. 영희가 철수(*만큼) 출석했다./결석했다.
 ㄴ. 영희가 철수(*만큼) 합격/불합격했다.

2)처럼

‘처럼’ 구문은 비교 대상의 양태 등을 표현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정도를 한
정하는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따라서 서술어의 결합
에 있어서는 그 의미에 등급이 존재하는 반의대립어를 사용하여 정도를 표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내부에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상보대립어 또한 서술
어로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9) ㄱ. 이 공이 저 공처럼 크다./작다.

ㄴ. 오늘은 어제처럼 춥다./덥다.

(10) ㄱ. 영희가 철수(처럼/*만큼) 출석했다./결석했다.

ㄴ. 영희가 철수(처럼/*만큼) 합격/불합격했다.

3) 같이

‘같이’ 구문은 비교 대상의 상태, 양상 등을 표현하며 그 자체가 정도를 한정하는 기능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서술어의 결합에 있어서 그 의미에 등급이 존재하는 반의대립어는 물론이고, 상보대립어 또한 서술어로서 표현될 수 있다.

(11) ㄱ. 이 공이 저 공같이 크다./작다.

ㄴ. 오늘은 어제같이 춥다./덥다.

(12) ㄱ. 영희가 철수(같이/처럼/*만큼) 출석했다./결석했다.

ㄴ. 영희가 철수(같이/처럼/*만큼) 합격/불합격했다.

3. 정도부사의 공존 여부

1) 만큼

‘만큼’ 비교구문은 두 비교 대상의 정도가 동일한 경우이므로 이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오경숙 2004:212).³⁾ 정도부사는 두 대상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므로, 두 비교 대상의 정도

3) ‘만큼’ 비교구문에서 두 비교 대상의 정도가 동일하다는 견해는 일반적이거나, 이에 대해 김봉모(1990:56)는 “ ‘만큼’ 견준말의 정도성은 견준의 주체보다는 높다. 그것은 ‘만큼’이나 ‘거의’라는 어휘 의미에서 엿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비교구문에서 두 비교 대상의 비교 정도가 절대적인 측정치를 기준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김봉모(1990)가 주장한 ‘만큼’이나 ‘거의’라는 어휘 의미에서 오히려 두 비교 대상의 정도의 동일함을 추론할 수 있다고 본다.

가 동일한 경우를 전제하는 ‘만큼’ 비교구문에 정도부사가 공존하지 못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2)처럼

오경숙(2004:212)에서는 ‘처럼’ 비교구문은 두 정도를 비교하여 둘이 ‘동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상태를 비교하는 표현으로서, ‘석이가 민이처럼 {매우/조금} 크다.’에서는 석이의 ‘{매우/조금} 크다’라는 상태와 민이의 ‘{매우/조금} 크다’라는 상태를 비교하여 이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처럼’ 구문에 정도부사가 공존하여 서술어가 표현하는 의미에 정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도부사가 두 대상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때, ‘처럼’ 비교구문은 비교되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로 함으로, ‘처럼’ 비교구문에서 정도부사의 결합 가능 여부는 두 비교구문이 비교되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는 ‘처럼’ 구문에 정도부사가 공존하는 것이 어색하다.

- (13) ㄱ. 토마토는 가지처럼 채소이다.
- ㄴ. 은수도 너처럼 대학생이다.
- ㄷ. 여의도도 제주도처럼 섬이다.

(13)의 예문들에서는 ‘처럼’의 선행어뿐만 아니라 용언인 서술어에도 정도성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정도부사가 공존할 수 있는 ‘처럼’ 구문이라 할지라도 정도부사의 공존은 어색하게 된다.

- (14) ㄱ. 토마토는 가지처럼 (*매우) 채소이다.
- ㄴ. 은수도 너처럼 (*매우) 대학생이다.

ㄷ. 여의도도 제주도처럼 (*매우) 섬이다.

다시 말해 서술어가 ‘-이다’형인 경우에는 그 의미 자체가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양태를 표현하는 경우이므로 정도부사가 공존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 같이

(15) ㄱ. 석이가 민이같이 매우 크다.

(16) ㄱ. 토마토는 가지같이 (*매우) 채소이다.

ㄴ. 은수도 너같이 (*매우) 대학생이다.

ㄷ. 여의도도 제주도같이 (*매우) 섬이다.

‘같이’ 비교구문에도 원칙적으로 정도부사가 공존할 수 있다. 단, (16)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서술어가 ‘-이다’ 형으로 정도성 표현이 아닌 경우에는 정도부사가 공존할 수 없음은 ‘처럼’ 구문과 같다.

4. 중의성

1) 만큼

‘만큼’ 구문은 부정문에서 중의성이 나타난다. ‘만큼’이 쓰인 문장이 부정문일 때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7) ㄱ. 이 공이 저 공만큼 크지 않아요.

ㄴ. 이 집은 그 집만큼 넓지 않아요.

(17ㄱ)에서 ‘저 공만큼’이 ‘크지(크다)’를 수식한다고 본다면 ‘저 공은 큰데 이 공은 크지 않다’는 뜻이고, ‘저 공만큼’이 ‘크지 않아요(크지 않다)’를 수식한다

고 본다면 ‘저 공이 크지 않은데 이 공도 마찬가지다’라는 뜻이다. (17ㄴ)에서도 ‘그 집만큼’이 ‘넓지(넓다)’를 수식한다고 본다면 ‘그 집이 넓은데 이 집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고, ‘그 집만큼’이 ‘넓지 않아요(넓지 않다)’를 수식한다고 본다면 ‘그 집이 넓지 않은데 이 집도 마찬가지다’라는 뜻이 된다.

2)처럼

‘처럼’ 구문의 중의성은 긍정문에서도 나타남이 ‘만큼’ 구문과는 다른 점이다. 즉, ‘처럼’구문의 중의성은 긍정문과 부정문에서 두루 나타난다.

‘처럼’ 구문에 중의성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나은미(2011:119)에서는 서술어에 대한 [+등급 한정성] 자질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만큼’은 서술어에 대한 [+등급 한정성] 을 갖기 때문에 서술어의 의미는 ‘-만큼’의 선행 요소와 동등한 등급을 표시하므로 ‘-만큼’ 구문과 서술어가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하지만, ‘-처럼’ 구문은 그러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처럼’ 구문이 어떤 성분과 의미적으로 긴밀한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이다.

- (18) ㄱ. 민이는 지수처럼 걷는다.
 ㄴ. (민이는 지수처럼) 걷는다.
 ㄷ. 민이는 (지수처럼 걷는다.)
- (19) ㄱ. 민이는 지수처럼 예쁘다.
 ㄴ. 민이는 지수처럼 학생이다.
- (20) ㄱ. 민이는 지수처럼 걷지 않는다.
 ㄴ. 민이는 지수처럼 예쁘지 않다.
 ㄷ. 민이는 지수처럼 학생이 아니다.

(18ㄱ)의 ‘민이는 지수처럼 걷는다.’는 각각 (18ㄴ) 또는 (18ㄷ)으로 해석될 수 있다. (18ㄴ)은 민이는 지수와 마찬가지로 ‘걷는다’는 동작을 한다는 뜻이고, (18ㄷ)은 민이는 ‘지수가 걷는 양태’와 유사하다는 뜻을 가진다. 이렇듯 ‘처럼’ 구문은 긍정문에서도 어떤 성분과 더 긴밀히 연결되느냐에 의미하는 바가 다르

게 해석된다. 이러한 긍정문에서의 중의성은 앞의 예에서와 같이 서술어가 동사일 때 두드러진다(나은미 2011:119, 오경숙 2010:155).

(19ㄱ)에서와 같이 서술어가 형용사이거나 (19ㄴ)과 같이 서술어가 ‘-이다’와 같은 계사 구성일 경우에는 중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처럼’ 구문이 긍정문에서 중의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서술어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 한한다고 볼 수 있다.

‘처럼’ 구문이 부정문에서 중의성을 보이는 것은 긍정문의 경우와는 달리 서술어가 동사, 형용사, ‘-이다’ 일 때 모두 나타난다. (20ㄱ)의 ‘민이는 지수처럼 걷지 않는다.’는 민이는 지수와 마찬가지로 ‘걷지 않는다’는 동작을 한다는 뜻을 의미할 수도 있고, 민이는 ‘지수가 걷는 양태’와는 다른 모습으로 걷는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긍정문에서와는 다르게 ‘지수처럼’이 ‘걷지(걷다)’를 직접 수식하는 것으로 본다면 ‘지수는 걷는데, 민이는 걷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20ㄴ,ㄷ)과 같이 서술어가 동사가 아닌 경우는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에 나타나는 두 가지 의미인 ‘동작’이나 ‘양태’이나의 중의성은 나타나지 않고, ‘처럼’ 구문이 전체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서술어의 어느 부분에 더 긴밀히 연결되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중의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20ㄴ) ‘민이는 지수처럼 예쁘지 않다.’에서 ‘지수처럼’이 ‘예쁘지(예쁘다)’를 수식한다고 본다면 ‘지수는 예쁜데 민이는 예쁘지 않다’는 의미가 되고, ‘지수처럼’이 ‘예쁘지 않다’를 수식한다고 보면 ‘민이는 지수와 마찬가지로 예쁘지 않다’는 의미가 된다.

(20ㄷ) ‘민이는 지수처럼 학생이 아니다.’의 경우도 ‘지수처럼’이 ‘학생이(다)’를 수식한다고 보면, ‘지수는 학생인데 민이는 학생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고, ‘지수처럼’이 ‘학생이 아니다’를 수식한다고 보면, ‘민이는 지수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3) 같이

(21) ㄱ. 민이는 지수같이 걷는다.

ㄴ. (민이는 지수같이) 걷는다.

- ㄷ. 민이는 (지수같이 걷는다.)
- (22) ㄱ. 민이는 지수같이 예쁘다.
 ㄴ. 민이는 지수같이 학생이다.
- (23) ㄱ. 민이는 지수같이 걷지 않는다.
 ㄴ. 민이는 지수같이 예쁘지 않다.
 ㄷ. 민이는 지수같이 학생이 아니다.

위의 예문들은 앞서 ‘처럼’ 구문의 예문들에서 ‘처럼’을 ‘같이’로 바꾼 예이다. ‘처럼’을 ‘같이’로 대치하여도 그 의미나 기능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처럼’ 구문에서 보인 중의적 해석이 ‘같이’ 구문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제 3 절 비유표현 용법

나은미(2011:125-126)는 비유표현은 견줄 주체의 존재 양상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서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전자를 ‘양적 비유표현’ 후자를 ‘양상 비유표현’이라 하였다. 즉 ‘만큼’이 결합되면 비유표현의 경우에도 양적 비유 표현으로 실현되며, ‘처럼’이 결합되면 양상 비유 표현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만큼’과 ‘처럼’, ‘같이’의 비유 의미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만큼’의 비유 의미 특징

비유란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속성이나 양태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만큼’은 비교하는 두 대상 간의 정도를 측정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유의 의미를 나타내기 보다는 비교의 의미를 가진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하길중(1998:326-327)에서는 ‘영이의 키는 철이만큼 크다.’는 비교표현으로 보는 반면, ‘영이의 키는 전봇대만큼 크다.’는 비유표현으로 보고 있다. 즉 ‘영이와 전봇대’의 크기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영이’의 키가 큰 것을 ‘전봇

대'가 큰 것에 비유하였다고 보았다. '영이'의 [+큰 키...] 와 '전봇대'의 연상자질인 [+크다. +높다...] 에서 [+큼] 이라는 공통적인 자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유표현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유표현의 기준에 따라 비교 주체와 비교 대상 간에 각각의 변별적 자질이 이질적이라 판단되며, 견주는 주체의 양태를 견주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에 빗대어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비유 대상이 비특정적이고 서술어로 표현된 그 대상의 속성이 일반적·보편적 속성을 나타내는 경우를 비유표현이라고 할 때, 이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구문 역시 비유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만큼' 비유표현은 나은미(2011:125)에서 지적한 대로 '양적 비유표현'에 해당하는 것이다.

(24) ㄱ. 그 아이의 뺨이 홍당무만큼 붉다.

ㄴ. 고기가 고무줄만큼 질기다.

ㄷ. 우사인 볼트는 번개만큼 빠르다.

(24)은 비유문으로 표현된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유'의 본래 의미가 어떠한 대상의 특성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라 할 때, '양적' 비유표현에 해당하는 '만큼' 비유구문은 '처럼' 비유구문에 비해 많이 쓰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나은미(2000:48)에서도 '만큼'은 동질적인 요소를 직접 견주는 비교표현에 주로 쓰이며, 비유적 표현도 있으나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진 경우라고 하였다.

관용적으로 쓰이는 비유표현으로 '병아리 눈물만큼', '손톱만큼', '쥐꼬리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등을 들 수 있다. 나은미(2000:45)는 '병아리 눈물만큼', '손톱만큼'은 아주 작은 양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며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진 유형이기 때문에 다른 대비 조사와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관용적 표현은 아주 적거나, 작은 것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늘만큼', '땅만큼' 같이 아주 크거나 많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어떤 대상에 대해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라고 보여 진다고 하였다.

2. ‘처럼’의 비유 의미 특징

‘처럼’은 이질적인 대상의 특정 속성이나 상태의 유사함을 건주는 비유 표현에 주로 쓰인다(나은미 2000:65). 이 점에서 ‘처럼’ 구문의 비교표현과 구별된다. 또한 ‘양상 비유표현’이라는 점에서 ‘양적 비유표현’인 ‘만큼’ 비유표현과 구별된다.

- (25) ㄱ. 그 아이는 어른처럼 행동한다.
 ㄴ. 지수가 소희처럼 예쁘다.
 ㄷ. 자동차가 기차처럼 빠르다.
- (26) ㄱ. 그 아이의 뺨이 홍당무처럼 붉다.
 ㄴ. 고기가 고무줄처럼 질기다.
 ㄷ. 우사인 볼트는 번개처럼 빠르다.

비교 표현의 의미를 가진 (25)의 예문들을 보면, (25ㄱ,ㄴ)에서 ‘아이’와 ‘어른’, ‘지수’와 ‘소희’는 [+사람] 의 자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25ㄷ)에서 ‘자동차’와 ‘기차’는 [+탈것] 의 자질 면에서 동질적이다. 또한 (38ㄱ)의 비교 대상인 ‘어른’이 ‘행동한다’는 양태는 그 대상인 어른에 특징적인 사항이 아니다. 이 점은 ‘소희처럼 예쁘다’, ‘기차처럼 빠르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해 (26ㄱ)의 비유주체와 비유대상인 ‘뺨’과 ‘홍당무’는 서로 이질적이다. 또한 ‘홍당무처럼 붉다’에서 비유대상인 ‘홍당무’가 ‘붉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홍당무의 특징이다. (26ㄴ)에서는 ‘고기’와 ‘고무줄’이 서로 이질적인 대상이고, ‘고무줄이 질기다’는 사실은 고무줄의 특징으로 잘 알려져 있다. (26ㄷ)에서 ‘우사인 볼트’와 ‘번개’는 이질적이며, ‘번개가 빠르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번개’의 특징이다. 이렇게 비유 주체와 비유 대상이 이질적이며, 비유 주체를 비유 대상의 잘 알려진 속성에 빗대어 표현할 때 비유의 의미가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처럼’ 구문의 비유표현은 ‘만큼’ 구문의 비유표현과 달리 비유 대상의 속성이나 양태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처럼’ 구문이 비유의 표현으로 쓰였을 때는 문장 안에서 ‘마치 ~처럼’의 구

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 (27) ㄱ. 그 아이의 뺨이 마치 홍당무처럼 붉다.
ㄴ. 고기가 마치 고무줄처럼 질기다.
ㄷ. 우사인 볼트는 마치 번개처럼 빠르다.

3. ‘같이’의 비유 의미 특징

‘같이’ 구문은 ‘처럼’ 구문과 그 의미와 기능면에서 거의 같다는 것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유표현에서 ‘처럼’을 ‘같이’로 대체하여도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8) ㄱ. 그 아이의 뺨이 홍당무(처럼/같이) 붉다.
ㄴ. 고기가 고무줄(처럼/같이) 질기다.
ㄷ. 우사인 볼트는 번개(처럼/같이) 빠르다.

또한 ‘같이’ 구문도 ‘마치 ~같이’로 표현할 수도 있다.

- (29) ㄱ. 그 아이의 뺨이 마치 홍당무같이 붉다.
ㄴ. 고기가 마치 고무줄같이 질기다.
ㄷ. 우사인 볼트는 마치 번개같이 빠르다.

‘같이’는 관용적인 비유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30) ㄱ. 앵두같이 아름다운 입술
ㄴ. 별같이 초롱초롱한 눈
ㄷ. 조각같이 뚜렷한 이목구비

(30ㄱ)은 입술을 앵두에, (30ㄴ)은 눈을 별에, (30ㄷ)은 이목구비를 조각상에

비유함을 나타낸다(국립국어원 2005:3-4).

(31) ㄱ. 우리는 새벽같이 출발했다.

ㄴ. 나는 매일같이 운동한다.

(31)의 ‘새벽같이’, ‘매일같이’도 관용적 비유표현으로 굳어져 시간에 관계되는 일부 명사에 붙어, 그 시간성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낸다(백봉자 2006:8).



제 3 장 한국어 교재 분석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만큼’, ‘처럼’, ‘같이’의 이론적인 분석을 토대로 하여 국내 5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각 교재에서의 ‘만큼’, ‘처럼’, ‘같이’의 제시 양상과 교수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만큼’, ‘처럼’, ‘같이’를 한국어 교재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급수별 수록 단계는 적절한지, 제시 형태는 어떠한지, 설명은 적절한지, 연습 문제는 실제 담화 상황을 반영하여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어 문법 교육의 단계별 성취 목표가 제시된 경우는 한국어능력시험을 들 수 있는데, <어휘·문법> 영역의 등급별 평가 내용 중 문법 관련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중급 전반 단계인 <3급>의 평가 항목 중에 「 ‘만큼’, ‘처럼’, ‘대로’, ‘뿐’ 등 비교적 복잡한 의미를 갖는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2005:121-122). 이 기준에 따라 보조사로서의 ‘만큼, 처럼, 같이’의 각 대학 교재에서의 수록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기술한 바와 같이 ‘만큼’, ‘처럼’, ‘같이’는 ‘비교’와 ‘비유’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법 설명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비교표현과 비유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요즈음 한국어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는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목표는 학습자가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적절한 말을 구사하여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제한국어교육학회(2010:195). 이러한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원리에 따라, 목표 문법의 설명과 연습 문제가 이러한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실제적인 담화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각 대학 별로 한국어 교재에서의 제시 현황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절 경희대 교재 분석

1. 수록 단계와 제시 형태

[표 1-1] 급수별 수록 단계와 제시 형태

경희대	만큼	중급 I 3과	-(으)ㄴ 만큼/ -만큼
	처럼	중급 I 1과	(마치) -처럼
	같이	.	.

2. 설명방식

[표 1-2] 설명 방식

경희대	만큼	동사 (으)는 만큼 / 명사 만큼 사람은 누구나 주는 만큼 받기를 원한다. 내 딸은 얼굴이 예쁜 만큼 마음씨도 고와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처럼	(마치) 명사 처럼 가을 하늘은 호수처럼 파랗습니다. 설악산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엄마가 만들어 주신 음식처럼 맛있는 것은 없습니다.
	같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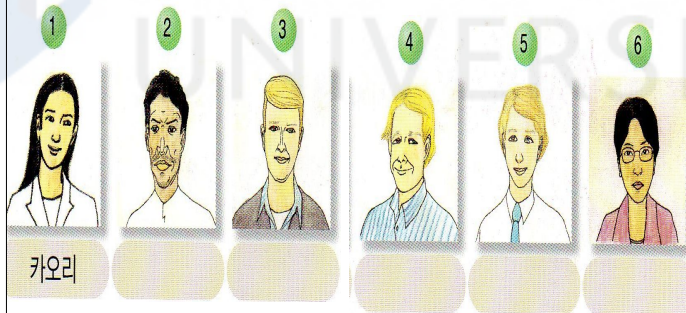
3. 연습 문제의 양상

[표 1-3] 연습 문제의 양상

경희대	만큼	듣기 과제 나오코: 정말 오랜만이다. 회사 생활은 어때? 알 리: 하루 종일 바쁘기는 한데, 아직 뭐가 된 지 잘 모르겠어. 대학원 생활은 재미있니? 나오코: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 알 리: 그래? 그럼, 발표나 리포트는 어떻게 해? 나오코: 민정이라는 친구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 이따가 만나기로 했는데, 같이 갈까? 알 리: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회사에 다시 돌아가 봐야 돼. 나오코: 왜? 퇴근한 것 아니야? 알 리: 아니, 너 만나려고 잠깐 나온 거야. 다시 돌아가 내일 회의에 쓸 자료를 정리해야 돼. 나오코: 회사 생활도 대학원 생활만큼 힘들구나. 알 리: 힘들기는 하지만 새로운 걸 많이 경험할 수 있어서 재미있어. 나오코: 그래, 빨리 들어가 봐. 다음에 또 연락할게.
	처럼	읽고 말하기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우리 반 친구들 우리 반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온 민영 씨는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공부를 잘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민영 씨가 선생님처럼 우리 반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알리 씨는 험상궂게 생겨서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리 씨하고 제일 친합니다. 일본에서 온 카오리 씨는 곰 인형처럼 귀엽게 생겼고, 미국에서 온 제임스 씨는 너그럽게 생겼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스 씨는 얼음처럼 차갑게 생겼지만,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알랭 씨는 영화 배우처럼 멋있게 생겨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1. 이 글은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2. 인상과 성격이 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 민영, 알리 ☐ 카오리, 제임스
☐ 한스, 알랭 ☐ 알리, 한스
3. 빈칸에 사람의 이름을 쓰십시오.



모듬활동 친구들의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름	첫인상	이유
----	-----	----

		나오코	귀엽다	얼굴이 동그랗고 곰인형처럼 생겨서
	같이	.		

경희대 교재는 매 과마다 하나의 주제를 단원으로 하여 도입, 듣고 말하기, 듣기 과제, 문법, 읽고 말하기, 쓰기, 속담과 관용어/문화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언어의 네 기능과 문화 학습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급 I 의 1과(단원명: 첫인상)의 문법 항목에 ‘처럼’이 ‘(마치) 명사 처럼’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고, 중급 I 의 3과(단원명: 직장 생활)의 문법 항목으로 ‘동사 (으)는 만큼 / 명사 만큼’을 제시하고 있다.

경희대 교재는 다른 대학의 교재들과는 달리 보조사인 ‘만큼’과 함께 의존 명사로서의 ‘만큼’을 같은 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 점은 보조사인 ‘만큼’과 의존 명사로서의 ‘만큼’을 함께 제시하여, 그 형태는 같으나 의미와 용법에서 차이가 있음을 인지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 진다. 그러나 ‘만큼’을 결합하는 선행어에 따라 구분하여 ‘동사 (으)는 만큼’과 ‘명사 만큼’의 형태로 제시할 뿐 그 의미나 용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뚜렷이 밝히고 있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설명에 쓰인 예문을 보면 ‘명사+만큼’의 결합된 문장은 정도의 비교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같이 제시된 ‘동사+(으)는 만큼’이 결합된 문장 또한 정도를 표현하는 의미로 한정하여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 즉, ‘만큼’을 정도 비교의 의미에 한정하여 ‘동사 (으)는 만큼’과 ‘명사 만큼’을 의미적 동질성에 맞추어 함께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럼’의 예문을 보면 앞의 두 문장은 비유문으로 마지막 문장은 비교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만큼’은 정도성 비교표현에 주로 쓰이고 ‘처럼’은 양태성 비교표현에 주로 쓰인다고 볼 때 ‘엄마가 만들어 주신 음식처럼 맛있는 것은

4) ‘-(으)는 만큼’은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 그녀는 착하고 예쁜 만큼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

없습니다.’의 예문은 음식의 맛있는 ‘정도’가 최고임을 나타내는 의미이므로 ‘처럼’보다는 ‘만큼’ 구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고 본다.

연습 문제를 통하여 설명한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처럼’은 ‘읽고 말하기’ 항목에서 비유 표현으로서의 연습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그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실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법 설명 시 예문으로 제시했던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에 대한 연습은 없음을 알 수 있다.

‘만큼’의 경우에는 듣기 지문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 중급 초반의 학습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고 하나의 듣기 지문에서 단 한 차례 ‘생활만큼’으로 제시될 뿐 전체 지문의 내용이 단원명인 직장 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만큼’에 대한 연습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함께 제시했던 의존명사인 ‘만큼’에 대한 연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같이’는 교재에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같이’는 ‘처럼’과 그 의미와 용법 면에서 거의 같으므로 ‘처럼’과 함께 교수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제 2 절 고려대 교재 분석

1. 수록 단계와 제시 형태

[표 2-1] 급수별 수록 단계와 제시 형태

고려대	만큼	2권 15과	-만큼
	처럼	2권 7과	-처럼
	같이	.	.

2. 설명 방식

[표 2-2] 설명 방식

고려대	만큼	· -만큼 is attached to a <u>noun</u>, indicating that the subject is equivalent to the noun. 영진씨는 마이클 씨만큼 키가 커요. 영진 is as tall as Michael. (1) 가: 방이 얼마만큼 넓어요? 나: 운동장만큼 넓어요. (2) 가: 날씨가 많이 덥지요? 나: 네, 그렇지만 우리 고향만큼 덥지는 않아요. (3) 가: 지금까지 가 본 곳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나: 저는 제주도가 제일 좋았어요. 제주도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는 것 같아요. (4) 가: 얼마만큼 드릴까요? 나: 이만큼만 주세요. (5) 가: 수미 씨가 그렇게 좋아요? 나: _____. (6) 가: 마이클 씨가 한국말을 아주 잘하죠? 나: _____.
	처럼	· -처럼 is attached to a <u>noun</u>, indicating that the subject is like that noun. 건호씨는 농구 선수처럼 키가 커요. 건호 is as tall as a basketball player. (1) 가: 단아 씨가 하얀 옷을 입으니까

		천사처럼 예쁘네요. 나: 정말 그러네요. (2) 가: 진호 씨는 어떻게 생겼어요? 나: 아버지를 닮아서 수영 선수처럼 어깨가 넓어요. (3) 가: 린다 씨의 한국어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 키도 작고, 말랐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는 호랑이처럼 무서워요. (4) 가: 마이클 씨는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잘 해요. 나: 맞아요, 나도 빨리 마이클 씨처럼 한국말을 잘 하고 싶어요. (5) 가: 성빈 씨는 어떻게 생겼어요? 나: _____ 잘 생겼어요. (6) 가: 미라 씨는 누구를 닮았어요? 나: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래서 _____.
	같이	.

3. 연습 문제의 양상

[표 2-3] 연습 문제의 양상

고려대	만큼	· 말하기 연습 中 5번 문항으로 제시 5. <보기1>이나 <보기2>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보기1> 방이 큰 원룸/ 이 사무실 가: 방이 큰 원룸을 구하고 싶은데요. 나: 마침 이 사무실만큼 방이 큰 데가 있어요. <보기2> 방이 큰 원룸/ 집, 그 집 가: 방이 큰 원룸을 구하고 싶은데요. I am looking for a big studio. 나: 마침 좋은 집이 있어요. 그 집만큼 방이 큰 데는 없을 거예요. There is just a good one. I don't think there is a studio as big as this one. ① 방이 넓은 하숙집/ 우리 사무실 ② 전망이 좋은 원룸/ 호텔 ③ 교통이 좋은 고시원/ 여기 ④ 주변이 조용한 하숙집/ 집, 거기 ⑤ 시설이 좋은 고시원/ 고시원, 그곳 ⑥ 햇빛이 잘 드는 원룸/ 집, 그 집
-----	----	---

		· 말하기 연습 中 3, 4번 문항으로 제시 3.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영진, 키가 크다/ 농구 선수 가: 영진 씨는 키가 커요? 나: 네, 농구 선수처럼 커요. ① 린다, 다리가 길다/ 모델 ② 제프, 얼굴이 잘 생기다/ 영화배우 ③ 수미, 얼굴이 동그랗다/ 보름달 ④ 마이클, 마르다/ 젓가락 ⑤ 장정, 눈이 작다/ 단춧구멍 ⑥ 철수, 배가 나오다/ 사장님 처럼 4. <보기>와 같이 연습하고,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는지, 체격이나 외모의 특징은 어떤지 친구와 묻고 대답해 보세요. 할머니, 코가 높다 가: 가족 중에서 누구를 닮았어요? 나: 할머니를 닮았어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처럼 코가 높은 편이에요. ① 아버지, 체격이 작다 ② 어머니, 어깨가 좁다 ③ 할아버지, 얼굴이 길다 ④ 할머니, 많이 마르다
--	--	--

		⑤ 아버지, 얼굴이 네모나다 ⑥ 어머니, 눈이 크다
	같이	.

고려대는 『재미있는 한국어』 전체 6권 중에서 초급 후반 단계인 2권에 보조사 ‘처럼’과 ‘만큼’을 각각 7과(외모·복장)와 마지막 과인 15과(집 구하기)에서 제시하고 있다.

문법 설명 방식 면에서 보면 ‘만큼’은 주 문장에서 ‘비교’의 의미로 제시한 후, 대화문 형식을 통해 그 의미를 숙지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의 경우에 ‘네,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요.’와 같은 대답을 가정해 본다면 관용적인 비유표현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처럼’의 경우에는 주 문장에서 ‘비교’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건호’와 ‘농구 선수’와의 [+사람] 으로서의 동질성과 서술어 ‘크다’의 반의대립어로서의 정도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1)의 ‘천사처럼 예쁘네요’의 경우는 비유표현의 예로 볼 수 있는 바, 비교와 비유가 뚜렷한 의미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습 문제를 살펴보면, 보조사 ‘만큼’은 제시 단계 내에서의 연습의 적절성 여부만을 놓고 볼 때, ‘집 구하기’라는 단원에서 제시한 목적에 맞게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된 대화문의 연습을 통해 한국에서 거주하게 될 학습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처럼’의 연습 문제 구성은 말하기 연습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교와 비유의 상황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내용 면에서 보면 말하기 연습 3에서는 설명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교표현과 비유표현의 예문들이 구분 없이 제시되어 있다. 말하기 연습 4에서는 비교의 의미를 가진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같은 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른 문법 항목인 ‘-는/(으)ㄴ 편이다’와 연계한 문형 연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는/(으)ㄴ 편이다’가 비교의 표현에 주로 쓰이는 문형이라는 점에서 ‘처럼’ 구문과 결합하여 ‘처럼’의 비교의 의미를 보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3 절 서울대 교재 분석

1. 수록 단계와 제시 형태

[표 3-1] 급수별 수록 단계와 제시 형태

서울대	처럼	2권 11과	N처럼 A/V (A/V like N)
		4권 5과	N처럼 A/V-(으)ㄴ/는 N도 없다
	같이	2권 23과	N같이 A/V (A/V like N)

2. 설명 방식

[표 3-2] 설명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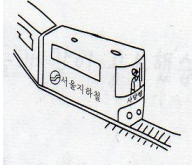
서울대	처럼	N처럼 A/V · 월슨 씨는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잘해요. · 내 동생도 나처럼 야구를 좋아해요. · 나처럼 발음해 보세요. · 그 여자는 꽃처럼 아름다워요. · 박 선생님은 시계처럼 정확하세요. N처럼 A/V-(으)ㄴ/는 N도 없다 · 이 세상에서 사랑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을 거예요. · 민수 씨처럼 남의 일을 잘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 내 친구처럼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	----	---

	같이	N같이 A/V · 그의 여동생은 남자같이 씩씩해요. · 우리 선생님은 그림같이 아름다워요. · 나는 아기같이 잠을 잘 자요. * 동생은 나처럼 예뻐요. 언니는 꽃처럼 예뻐요.

3. 연습 문제의 양상

[표 3-3] 연습 문제의 양상

서울대	처럼	가: 토니 씨는 한국말을 잘 합니다.  나: 네, 한국 사람처럼 잘해요.
		1) 가: 여자 친구가 예뻐요?  나: 네, _____. 2) 가: 그 구두가 편합니까? 나: 네, _____.

		
		3) 가: 부산 지하철이 어때요?  나: _____.
		4) 가: 그 사람 노래 잘 불러요?  나: 네, _____.
	같이	따로 연습 문제를 두고 있지 않다.

서울대 교재에는 보조사 ‘만큼’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느 다른 대학 교재와 차이가 있다. 또한 ‘처럼’과 보조사 ‘같이’를 ‘N처럼 A/V’, ‘N같이 A/V’의 형태로 제시하고 예문을 들어 그 뜻을 설명하고 있다.

문법 설명을 보면, ‘같이’의 예문 다음에는 ‘처럼’이 결합된 예문을 비교 제시하여 ‘처럼’이 ‘같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짐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럼’은 2권 11과에, ‘같이’는 2권 23과에 간격을 두고 나누어 제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이렇게 ‘처럼’과 ‘같이’를 같은 문형과 설명 방식으로 제시하면 한 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설명의 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교표현과 비유표현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4권 5과에서 ‘N처럼 A/V-(으)ㄴ/는 N도 없다’의 형태로 2권에서 제시했던 ‘처럼’ 구문이 결합하는 다른 문형을 제시한 점은 나선형 교수 방법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다고 본다.

연습 문제의 양상을 살펴보면 ‘처럼’은 그림을 보고 ‘처럼’을 사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것인데 쓰기 연습인지 아니면 말하기 연습으로 하고자 함인지 문제의 활용 목표가 분명히 주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보조사 ‘같이’에 대해서는 연습문제를 따로 두지 않았다. 제시 단계나 설명, 연습 문제의 양상 등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 4 절 연세대 교재 분석

1. 수록 단계와 제시 형태

[표 4-1] 급수별 수록 단계와 제시 형태

연세대	만큼	2권 9과	만큼
	처럼	2권 10과 4권 6과	처럼 마치 -는/은/을 것처럼
	같이	.	.

2. 설명 방식

[표 4-2] 설명 방식

연세대	만큼	만큼 · 고래만큼 큰 동물은 없어요. · 경주만큼 인상적인 곳은 없어요. · 나는 리에만큼 잘 먹는 여자를 본 일이 없다. · 1900년대 후반에 한국만큼 빨리 발전한 나라는 없다.
	처럼	처럼 · 경치가 그림처럼 아름다워요.

		·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 친구는 영화배우처럼 잘 생겼어요. · 두 사람이 애인처럼 다정해 보였어요.
	같이	마치 -는/은/을 것처럼 어떤 것을 다른 것에 비유하여 말할 때 쓰며 ‘거의 비슷하게’의 뜻을 나타낸다. ‘마치’ 뒤에는 ‘처럼’이나 ‘같이’, ‘같다’ 등이 함께 쓰인다. · 마이클 씨는 발음이 좋아서 마치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 그 사람은 마치 웅변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 언니를 보면 마치 젊었을 때의 엄마를 보는 것처럼 엄마를 많이 닮았다. · 두 형제가 만나는 모습이 너무 슬퍼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 우리 할머니는 마치 어린아이 피부처럼 피부가 고와요.

3. 연습 문제의 양상

[표 4-3] 연습 문제의 양상

연세대	만큼	· 대답하십시오. [보기] 가: 무슨 시간이 제일 재미있어요? 나: 역사 시간만큼 재미있는 시간은 없어요.
-----	----	--

	1) 가: 무슨 일이 제일 귀찮아요? 나: 2) 가: 축구 선수 중에서 어느 선수가 제일 잘 해요? 나: 3) 가: 관광지 중에서 어디가 제일 아름다워요? 나: 4) 가: 언제 제일 가족이 그리워요? 나: 5) 가: 우리 반에서 누가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해요? 나:
처럼	· 다음 단어를 사용해서 대답하십시오. [아나운서 농구 선수 모델 코미디언 가수 영화배우] [보기] 김미선 씨는 영화배우처럼  예쁘게 생겼어요. ① 왕웨이 씨는 _____  재미있어요. ② 제임스 씨는 _____  키가 커요. ③ 오정희 씨는 _____

		 노래를 잘 해요. ④ 마리아 씨는 _____  발음이 좋아요. ⑤ 정민철 씨는 _____  옷을 잘 입어요.
	처럼	마치 -는/은/을 것처럼 알맞은 표현을 골라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늘을 날다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다 한 폭의 동양화를 보다 새가 날아오르다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오다 1) 그 분은 처음 만났을 때도 마치 _____ 는/은/을 것처럼 편했습니다. 2) 합격 소식을 듣고 마치 _____는/은/을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3) 내가 여행 갔던 곳의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서 마치 _____는/은/을 것 같았어요. 4) 그 발레리나는 그 장면에서 _____ 는/은/을 것처럼 가볍게 날아 올랐어요. 5) 남자친구가 생일에 장미꽃 100송이를 선물했을 때 는 마치 내가 _____는/은/을 것처럼

		기뻐어요.
	같이	.

연세대 교재는 ‘만큼’과 ‘처럼’을 각각 2권 9과와 10과에 연속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만큼’, ‘처럼’의 형태로 제시하고 예문을 들고 있다.

문법 설명의 방식을 보면 ‘만큼’은 ‘-만큼 -은/는 없다.’라는 정형화된 구문을 제시하여 ‘만큼’의 비교표현을 교수하려고 하는 점이 다른 교재와 다르다. 그러나 ‘만큼’ 구문의 기본 형태인 ‘A는 B만큼 -하다.’가 먼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이후에 ‘-만큼 -은/는 없다.’로 확장하여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처럼’의 경우는 비유문과 비교문을 다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럼’은 4권 6과에서 ‘마치 -는/은/을 것처럼’의 형태로 제시, 2권에서 선 학습된 ‘처럼’의 복잡한 문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 본 서울대 교재와 같이 나선형 구조의 교수 학습법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습 문제를 살펴보면 ‘만큼’은 문법 설명에서 제시한 문형의 연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어진 질문에 대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실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처럼’의 연습 문제는 주어진 보기 중에서 비교 또는 비유의 주체에 호응하는 대상을 골라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술부의 내용에 맞는 특징을 지닌 대상을 인지하여 비교(비유)주체와의 상관성을 이해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는/은/을 것처럼’은 주어진 보기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 이야기 해 보는 형식으로서 일상 언어생활에서 많이 표현되는 관용적인 문형의 연습을 통해 의사소통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절 이화여대 교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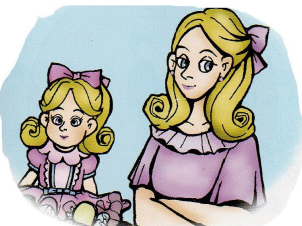
1. 수록 단계와 제시 형태

[표 5-1] 급수별 수록 단계와 제시 형태

이화 여대	만큼	Ⅲ 15과	N만큼
	처럼	Ⅱ 10과	-처럼/같이 생겼다
	같이	Ⅱ 10과	-처럼/같이 생겼다

2. 설명 방식

[표 5-2] 설명 방식

이화여대	만큼	·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재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 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룰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가수처럼 노래를 잘 부릅니까? 아니면 운동선수처럼 운동을 잘 합니까? 능력이나 재능을 누구와 비교해서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할까요? A: 유진 씨가 그렇게 농구를 잘해요? B: 그럼요, 농구 선수 같아요, 마이클 조던만큼 잘해요.
	처럼	·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보고 무엇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주 예쁜 여자를 보면 ‘인형처럼 생겼다’라고 인형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못생긴 여자는 무엇에 비유해서 말할까요?  

		·니콜은 인형처럼 생겼어요.	·로라는 호박같이 생겼어요.
	같이	· ‘처럼/같이 생겼다’의 구문으로 제시, 위와 동일함.	

3. 연습 문제의 양상

[표 5-3] 연습 문제의 양상

이화여대	만큼	· 여러분이 살던 도시는 어떻습니까? ‘N만큼’을 사용해서 말해 보십시오. [교통, 물가, 집값, 공해, 날씨, 실업난] A: 가오리 씨, 동경의 교통은 복잡한 편입니까? B: 네, 서울만큼 교통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처럼	· 여러분 친구들의 능력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성질을 다음 표를 보고 비유해서 말해 보십시오. <table><tr><th>이름</th><th>능력</th><th>행동/성격</th></tr><tr><td>수잔</td><td>춤을 잘 춘다/노래를 잘 한다</td><td>마음이 넓다</td></tr><tr><td>가오리</td><td>농구/수영을 잘 한다</td><td>빠르다</td></tr><tr><td>진호</td><td>노래를 잘 한다</td><td>느리다</td></tr><tr><td>요코</td><td>음식을 잘 만든다</td><td>부지런하다</td></tr></table> 수잔은 마돈나 같습니다. 마돈나처럼 춤을 잘 춥니다. 그리고 바다처럼 마음이 넓습니다.	이름	능력	행동/성격	수잔	춤을 잘 춘다/노래를 잘 한다	마음이 넓다	가오리	농구/수영을 잘 한다	빠르다	진호	노래를 잘 한다	느리다	요코	음식을 잘 만든다	부지런하다
	이름	능력	행동/성격														
수잔	춤을 잘 춘다/노래를 잘 한다	마음이 넓다															
가오리	농구/수영을 잘 한다	빠르다															
진호	노래를 잘 한다	느리다															
요코	음식을 잘 만든다	부지런하다															
같이	· ‘처럼/같이 생겼다’의 구문으로 제시, 위와 동일함.																

이화여대 교재는 II 10과에서 ‘처럼’과 ‘같이’를 ‘-처럼/같이 생겼다’의 문형으로 제시하고 비유의 의미를 나타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III 15과에서 ‘만큼’을 비교의 표현에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처럼, 같이’는 초급 후반 단계에서 비유의 의미로 한정하여 제시하고 있고, ‘만큼’은 중급 단계에서 비교의 의미로 한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교재들이 ‘비교’와 ‘비유’의 개념에 대한 분명한 설명 없이 예문만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인데,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러한 제시 방식은 효과적이라고 본다. 또한 ‘비교’와 ‘비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인지시키고 그 표현을 교수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의도와 가장 부합하는 구성이라고 하겠다.

‘비교’의 의미로 한정된 ‘만큼’과 ‘비유’의 의미로 한정된 ‘처럼’의 제시 순서에 대해 살펴보자면, 실제 생활 속에서 비교 표현을 하는 경우와 비유 표현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 모두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난이도에 있어서는 비교가 비유보다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질적인 두 대상의 정도를 비교하는 ‘만큼’ 구문은 이질적인 두 대상의 속성을 빗대어 표현하는 ‘처럼’ 구문보다 난이도가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비교표현의 의미로 제시된 ‘만큼’을 비유의 의미로 제시된 ‘처럼’보다 먼저 교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 교재에서 비교의 의미로 제시한 ‘만큼’을 비유의 의미로 제시한 ‘처럼/같이’보다 앞에서 제시하고 연이어 ‘처럼/같이’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연습 문제의 구성을 보면 ‘만큼’은 몇 가지 예시를 주고 이것을 이용하여 말하기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문법 설명에 있어서는 능력이나 재능을 누구와 비교할 때 쓴다고 하여 오히려 초급 단계에 맞는 설명을 하고 있으나 연습 문제에 사용된 소재와 문장은 중급 단계에 맞추어져 있어 괴리가 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학습자들이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처럼’의 연습 문제 구성은 친구들의 능력이나 성질을 비유해서 말해보게 함으로써 이 또한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도니다고

할 수 있다.

‘같이’에 대해서는 ‘처럼’과 같은 의미와 용법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따로 연습 문제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상에서 국내 다섯 개 대학의 교재를 분석해 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보조사 ‘만큼’과 ‘처럼’이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비교와 비유의 표현은 그 빈도가 잦은 편이므로 그 의미를 지닌 ‘만큼’과 ‘처럼’, ‘같이’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교수 학습이 꼭 필요한 어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보조사들은 의미와 용법 면에서 유사성을 지님과 동시에 차이점도 가지므로 같은 단계에서 제시하여 그 의미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분명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설명 방식 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교재에서 문법 항목으로 형태를 제시하고 예문을 몇 개 들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교재에 따라 ‘만큼’과 ‘처럼’ 또는 ‘같이’를 비교나 비유의 의미만으로 설명하거나 비교나 비유의 의미를 가지는 예문을 구분 없이 제시하고 있다. ‘만큼’은 비교표현의 빈도가 비유표현의 빈도보다 높고, ‘처럼, 같이’는 비유표현의 빈도가 높은 편이나 이들 보조사들은 각각 비교와 비유의 두 가지 의미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 표현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비교’와 ‘비유’의 개념을 명시하여 교수하고 ‘만큼’과 ‘처럼’, ‘같이’의 비교표현과 비유표현을 구분하여 교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연습 문제를 보면 대부분의 교재의 구성이 하나의 문법 항목에 대해 하나의 연습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수업 교수안에서는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실제 담화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다양한 기능의 연습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재가 하나의 지침서 역할을 하고 그 내용적인 부분의 보충은 교사의 역량과 열성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 실제 수업에서는 보조 자료 등을 활용한 충분한 설명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 4 장 교수 학습 방안

제 1 절 교수 학습 방안 개요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인 5개 대학 교재에서의 ‘만큼, 처럼, 같이’의 수록 단계는 대체로 초급 후반에서 중급 초반 정도로서 한국어 능력시험 평가 단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법 항목의 등급화의 기준이 되는 ‘일상 언어생활에서의 사용 빈도’와 ‘난이도’를 고려할 때, 비교와 비유의 의미를 가지는 ‘만큼, 처럼, 같이’는 초급 후반(2급) 정도의 단계에서 함께 제시하여 그 의미와 유사점, 차이점 등을 알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 교수 학습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교’와 ‘비유’의 개념을 명시하여 교수하고 ‘만큼’과 ‘처럼’, ‘같이’의 비교표현과 비유표현을 구분하여 교수하는 방안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비교와 비유’를 학습 단원으로 하여 전체 3차시 수업으로 구성하고 1차시에는 ‘만큼’의 비교표현을, 2차시에는 ‘처럼’, ‘같이’의 비교표현을 교수 학습하고 3차시에는 ‘만큼’과 ‘처럼’, ‘같이’의 비유표현과 관용적인 비유표현을 교수 학습하는 것으로 하였다. ‘처럼’과 ‘같이’는 의미, 용법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처럼’의 교수 학습 안을 제시하면서 ‘같이’를 같은 의미와 용법을 갖는 유의어로 교수하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

각 교수안은 ‘도입→제시→연습→활용→마무리’의 단계에 따라 구성하며,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원리에 입각하여 학습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언어의 네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 활동을 구성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목표 문법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제시 단계에서는 학습할 내용을 문형카드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해하도록 하였다. 연습 단계에서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하여 학습 문법을 충분히 연습하여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활용 단계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생활과 연결시킨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활동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게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그 시간에 배운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숙지시키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학습 단위	비교와 비유	
수업 차시	전체 3 차시, 각 차시 50 분	
학습 문법	‘만큼’, ‘처럼’, ‘같이’	
학습 대상	2급 후반 학습자 10명	
학습 목표	1 차시	· 비교의 개념을 익힐 수 있다. · ‘만큼’을 사용하여 정도를 비교하는 표현을 익힐 수 있다.
	2 차시	· ‘처럼/같이’를 사용하여 양태를 비교하는 표현을 익힐 수 있다. · 기 학습한 ‘만큼’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3 차시	· 비유의 개념을 익힐 수 있다. · ‘만큼’과 ‘처럼, 같이’의 비유표현을 익힐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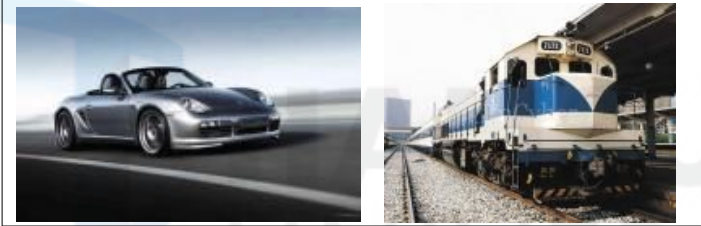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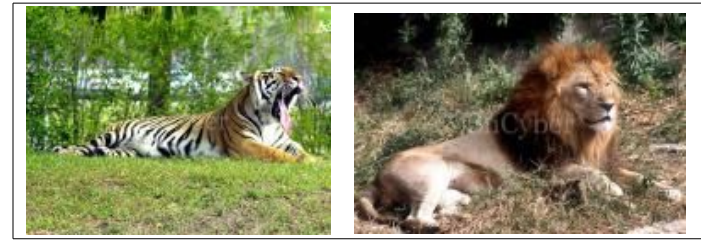
제 2 절 ‘만큼’의 비교표현 교수 학습 방안

1차시에는 ‘만큼’의 비교표현을 교수 학습하는 교수안을 구성하였다. ‘비교’라는 범주 하에 ‘비교’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비교표현으로서의 ‘만큼’의 의미와 용법을 인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하였다.

제시 단계에서는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에 주력하였다. 연습 단계에서는 ‘만큼’ 비교표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기 활동과 쓰기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만큼 -(으)ㄴ 없다’, ‘얼마만큼’ 등과 같은 확장된 표현까지 익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활용 단계에서는 듣기 활동과 말하기 활동을 연계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학습 단원	비교와 비유	
수업 차시	1차시 50 분	
학습 문법	보조사 ‘만큼’의 비교표현	
학습 대상	2급 후반 학습자 10명	
학습 목표	‘만큼’을 사용하여 비교하는 표현을 익힐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활동	준비물
도입 (5분)	T: 여러분, 안녕하세요. S: 선생님, 안녕하세요. T: 오늘 선생님이 학교에 오는데, 어떤 여자와 남자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둘이 애인인가 봐요. 두 사람 모두 키가 컸어요. 여자가 남자만큼 키가 컸어요. T: (교사의 가족 사진을 붙인다) 선생님 가족 사진이에요. 선생님의 두 아들이에요. 이 아이가 형이고 이 아이가 동생이에요. 동생이 형만큼 키가 크죠? 동생의 키가 형의 키만큼 컸어요. T: (사진을 붙인다)  사과가 달고 맛있어요.	사진

	 배가 달고 맛있어요. 사과가 배만큼 달고 맛있어요.	
제시 (10분)	T: (카드를 붙이며) 오늘은 'N만큼'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N만큼 앞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말했죠? (판서하며) '여자가 남자만큼 키가 컸어요(크다)', '동생의 키가 형의 키만큼 컸어요.', '사과가 배만큼 달고 맛있어요.'라고 했어요. T: (첫째 문장을 가리키며) 여자가 키가 큰데 남자와 같은 정도라는 뜻이에요. (둘째 문장을 가리키며)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이 말해 보세요. S: 동생의 키가 형의 키와 같은 정도라는 뜻이에요. T: 잘했어요. T: (셋째 문장을 가리키며)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S: 사과가 달고 맛있는데 배와 같은 정도라는 뜻이에요. T: 그래요, 아주 잘 했어요. 이렇게 '만큼'은 '정도'가 같을 때 쓰는 말이에요. ('만큼'과 '정도'를 판서한다.) T: 남자와 여자, 둘 다 사람이라는 점에서 같아요.	문 형 카 드

	동생과 형, 둘 다 사람이라는 점에서 같아요. 사과와 배, 둘 다 과일이라는 점에서 같아요, 이렇게 성질이 같은 두 가지의 정도가 같음을 표현하는 것을 ‘비교’한다고 해요.(‘비교’를 판서한다) 이때 ‘만큼’은 앞의 말에 붙여 써요. T: 즉, A와 B, 성질이 같은 두 가지가 서로 같거나 비 슷한 정도를 비교할 때 ‘N만큼’을 써서 말해요.	
연습 (20분)	[말하기 활동] PPT 화면을 차례로 보여 주고 학습자들이 ‘만큼’을 넣어 말하기 활동을 하게 한다. (슬라이드 1)  T: 이 사진을 보고 말해보세요. S: 자동차가 기차만큼 빨라요. T: 잘 했어요. (슬라이드 2) 	PPT 활동지

	T: 이 사진을 보고 말해보세요. S1: 호랑이가 사자만큼 커요. S4: 호랑이가 사자만큼 무서워요. T: 잘 했어요. (학생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말할 수 있다.) (슬라이드 3)  지리산(1915m) 한라산(1950m) T: 이것은 한국의 유명한 지리산과 한라산의 사진이에요. 우리가 배운 ‘만큼’을 써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S: 지리산이 한라산만큼 높아요. T: 네, 맞았어요. 아주 잘 했어요. [쓰기 활동] · <활동지>를 나누어 주어 학습자들이 ‘만큼’을 넣어 쓰기 활동을 하게 한다. · 활동지의 학습 내용은 제시 단계에서 교수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학습자들이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 구성한다. · (‘-만큼 -(으)ㄴ 없다’, ‘얼마만큼’ 등과 같은 표현을 알게 한다.) · 쓰기를 마친 후에는 학습자를 한 명씩 지목하여 답을 말하게 한다. · 확인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틀린 부분은 보충 설명한다. · ‘-만큼 -(으)ㄴ 없다’, ‘얼마만큼’ 등과 같은 표현을 설명	
--	---	--

	한다. <활동지> ◦ 다음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만큼’을 써서 비교하세요. <보기> 코끼리, 내 방, 얼마, 우리 집, 민희 1. 지수가 _____ 예뻐요. 2. 이 방은 _____ 깨끗해요. 3. 그 집은 _____ 넓어요. 4. _____ 큰 동물은 없어요. 5 _____ 드릴까요?	
활용 (10분)	[듣기 활동와 말하기 활동의 연계] · 두 명씩 짝을 지어 아래의 두 가지 문형으로 자유롭게 말해 보게 한다. ◦ A는 B만큼 -하다. ◦ -만큼 -(으)ㄴ -은/는 없다. · 한 팀씩 상대방이 말한 것을 잘 듣고 말하게 한다.(발표 시킨다)	
마무리 (5분)	·교사는 ‘비교’의 개념과 ‘만큼’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 요약 정리하고 질문이 있으면 답해준다.	

제 3 절 ‘처럼/같이’의 비교표현 교수 학습 방안

2차시에는 ‘처럼/같이’의 비교표현을 교수 학습하는 교수안을 구성하였으며, 1차시에서 배운 ‘만큼’의 비교표현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 단계에서는 읽기 지문을 통한 제시를 하였으며, ‘처럼/같이’의 비교표현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만큼’ 비교표현과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연습 단계에서는 ‘만큼’ 비교표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쓰기 활동과 짝 활동을 통한 말하기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활용 단계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만큼’ 비교표현과 ‘처럼/같이’ 비교표현을 연계하여 게임을 구성하였다.

학습 단원	비교와 비유	
수업 차시	2차시 50 분	
학습 문법	보조사 ‘처럼’, ‘같이’의 비교표현	
학습 대상	2급 후반 학습자 10명	
학습 목표	· ‘처럼’, ‘같이’를 사용하여 비교하는 표현을 익힐 수 있다. · 기 학습한 ‘만큼’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활동	준비물
도입 (5분)	· 인사한다. · 지난 시간에 학습한 ‘비교’의 개념과 ‘만큼’의 정도 비교 표현에 대해 간단히 정리, 복습한다.  T: (사진을 붙이며) 한국의 꽃미남 연예인들이에요. 여러	사진

	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S: 네- T: 누구예요? S: 송중기요, 장근석이요, 이기광이요, 이준기요. T: 이 남자들은 아주 예쁘죠? S: 네- T: 그래요, 남자가 여자처럼 생겼어요. 남자가 여자처럼 예쁘게 생겼어요.	
제시 (10분)	T: (카드를 붙이며) 오늘은 ‘N처럼’, ‘N같이’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N처럼 N같이 T: S3는 누구를 닮았어요? S3: 엄마요. T: 아, S3는 엄마처럼 생겼군요. S3는 엄마랑 어디가 닮았어요? S3: 코가 닮았어요. T: 네, S3의 코가 엄마처럼 생겼어요. S3의 코가 엄마같이 생겼어요. · 학습자들에게 읽기 지문을 통한 제시를 한다. 다 같이 소리 내어 읽게 한다. [읽기 활동]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언니,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 식구예요. 오빠는 아빠처럼 키가 크고 뚱뚱해요. 언니는 엄마를 닮아서 예쁘게 생겼어요. 엄마처럼 눈이 크고 코가 오	문 형 카 드

	똑해요. 저도 언니같이 머리가 길고 눈이 커요. T: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큼’을 써서 ‘정도’를 비교하는 표현을 배웠어요. 그런데 ‘처럼’과 ‘같이’를 써서 비교할 수도 있어요. 즉 같은 성질을 가지는 두 가지의 ‘모습’이나 상태가 비슷하거나 같을 때 쓰는 말이에요. ‘처럼’과 ‘같이’는 같은 뜻과 쓰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꾸어 쓸 수 있어요. 이때 ‘처럼’, ‘같이’도 앞의 말에 붙여 써요.	
연습 (20분)	· 활동지를 주어 ‘처럼’이나 ‘같이’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게 한다. · 한 명씩 발표하게 한다. <활동지> ◦ 다음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처럼’이나 ‘같이’를 써서 비교하세요. <보기> 오이, 제주도, 언니, 영수, 아버지, 어제 1. 나는 _____ 머리가 길어요. 2. 여의도는 _____ 섬이에요. 3. 오늘도 _____ 비가 와요. 4. 아들이 _____ 걸어요. 5. 철수는 _____ 대학생이에요. 6. 호박도 _____ 채소예요. [말하기 활동-짝 활동] · 2명 씩 짝을 지어 한 사람이 하나의 단어(사물 또는	

	사람 등)을 제시하면 다른 한 사람이 ‘처림/같이’를 써서 표현하게 한다. 역할을 바꾸어서도 하게 한다. 한 팀 씩 발표하게 한다.	
활용 (10분)	· 활용 단계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만큼’ 비교표현과 ‘처림/같이’ 비교표현을 연계하여 게임을 구성한다. 이를 통하여 두 가지 표현의 용법을 숙지하게 한다. · 게임- ‘만큼’, ‘처림/같이’를 사용한 릴레이 · 5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만큼’, ‘처림/같이’ 중에서 파트를 정한다. · 한 팀 당 2분 안에 더 많은 표현을 한 팀이 이긴 걸로 한다. · 파트를 바꾸어 다시 게임한다. · 교사는 적절한 보상을 미리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흥미와 의욕을 높인다.	
마무리 (5분)	· ‘처림/같이’의 비교표현에 대해 정리하고, ‘만큼’ 비교표현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충분히 인지시킨다.	

제 4 절 ‘만큼’과 ‘처림, 같이’의 비유표현 교수 학습 방안

3차시에는 ‘비유’라는 개념을 익히도록 하였고 그 안에 ‘만큼’, ‘처림/같이’비유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관용적 비유에 대해서도 학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듣기를 통한 제시를 하여 실제 상황의 대화 속에서 비유와 관용적 비유표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습과 활용을 통하여 실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비유하여 묘사해 보

도록 하였다.

학습 단원	비교와 비유	
수업 차시	2차시 50 분	
학습 문법	보조사 ‘만큼’, ‘처럼’, ‘같이’의 비유표현, 관용적 비유	
학습 대상	2급 후반 학습자 10명	
학습 목표	· ‘만큼’, ‘처럼’, ‘같이’를 사용하여 비유하는 표현을 익히고, ‘만큼’과 ‘처럼/같이’의 차이를 알 수 있다. · 관용적인 비유표현을 익힐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활동	준비물
도입 (5분)	· 인사한다 · 지난 시간에 학습한 ‘비교’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 복습한다. T: (사진을 보여 준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S: 네. T: 그럼, 이건 뭐예요? S: 돼지요. T: 이 두 사진을 보고 지난 시간에 배운 ‘만큼’이나 ‘처럼, 같이’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S1: 남자가 돼지만큼 뚱뚱해요. T: 네, 잘 했어요. 또 말해 볼 사람?	사진

	S7: 남자가 돼지처럼 생겼어요. T: 네, 잘 했어요. 조금 어려웠는데 여러분이 잘 말했어요. 이 두 사진을 보고 어떻게 말할까요? S5: 아기가 곰인형만큼 귀여워요. T: 네, 잘했어요. ‘아기가 곰인형같이 귀엽게 생겼어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T: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 우사인 볼트예요. 여러분 잘 알죠? S: 네-. T: ‘우사인 볼트는 번개만큼 빠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시 (10분)	T: 남자(사람)과 돼지, 아기와 곰인형, 우사인 볼트(사람)과 번개, 이렇게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정도나 모습을 표현 하는 것을 ‘비유’한다고 해요.(‘비유’를 판서한다) ‘비교’와 마찬가지로 ‘만큼’을 쓰면 ‘정도’를 비유하는 것	듣 기 지 문 오 디 오 시스템

	이고, ‘처럼, 같이’를 쓰면 ‘모습’이나 ‘상태’를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때도 앞말에 붙여 써요. · 듣기 지문을 통해 비유표현을 제시한다. [듣기 활동] 영기: 진우야, 너 여자 친구 생겼다면서? 진우: 응, 소개팅으로 만났어. 영기: 어떻게 생겼어? 진우: 피부는 눈처럼 희고 얼굴은 계란처럼 가름해. 눈은 별같이 반짝이고 입술은 앵두같이 빨개. 영기: 여자 친구 자주 만나? 진우: 매일같이 만나. 영기: 그 여자 친구 많이 좋아해? 진우: 응,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해. · 질문을 통해 들은 바를 확인한다. · 모습이나 상태를 어떤 것에 비유할 때 ‘처럼’구문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 지문에 나오는 ‘앵두같이’는 주로 입술의 모습(색깔)을 나타낼 때 쓰는 관용적인 비유표현이며, ‘매일같이’는 시간성을 강조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은 정도를 표현할 때 쓰는 관용적인 비유표현임을 가르친다.	
연습 (20분)	[쓰기 활동, 듣기 활동] · 두 명씩 짝을 지어 ‘만큼’ 또는 ‘처럼, 같이’를 써서 상대방의 특징이나 장점 등을 묘사하는 글을 세 가지 정도 쓰게 한다. · 교사가 학습자들이 쓴 활동지를 수합한 후에 한 장 씩 읽고, 누구인지 맞춰 보게 한다.	

활용 (10분)	·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 비유표현을 써서 묘사하도록 한다. (한 명씩 앞에 나와서 말하기 한다.)	
마무리 (5분)	· 비유표현에 대해 요약정리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비교표현과의 차이점도 인지시킨다. · 관용적인 비유표현을 세 가지씩 찾아서 그 뜻을 쓰고 각각의 표현이 들어가는 세 가지 문장을 만들어 오도록 한다.(과제)	

이상과 같이 전체 3차시에 걸친 교수 학습 안을 구성하였다. 기존의 교재들이 취하고 있는 단어별 교수 학습 방식과는 차별을 두어 ‘비교’와 ‘비유’라는 범주로 나누어 ‘만큼’, ‘처럼/같이’의 의미와 용법, 이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요즈음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취하고 있는 의사소통식 교수법에 따라 최대한 맥락을 활용하여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안을 구성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두루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보조사 동등 비교와 비유의 의미를 가지는 ‘만큼’과 ‘처럼’, ‘같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의미적 특징을 밝히고 이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여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비교와 비유의 구분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 견해도 있으며, ‘만큼’ 구문과 ‘처럼’, ‘같이’ 구문의 동질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만큼’과 ‘처럼’, ‘같이’는 동등 비교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각각 비교와 비유의 표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도 같은 범주로 묶어 고찰해보고자 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이론을 전제로 하여 현재 5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들을 분석하여, 이들 교재에서 ‘만큼’, ‘처럼’, ‘같이’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즉, 급수별 수록 단계는 적절한지, 제시 형태는 어떠한지, 설명은 적절한지, 연습 문제는 실제 담화 상황을 반영하여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수 학습 방안에서는 ‘비교’와 ‘비유’라는 각각의 카테고리를 정하여 그 하위 부류에 ‘만큼’과 ‘처럼’, ‘같이’를 두고 이들 간의 유사점은 물론이고 그 차이점을 분명히 인지하도록 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의 혼돈을 막고 적절한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의사소통식 교수법을 취하여 맥락을 활용하여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안을 구성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각 차시에 걸쳐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두루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교와 비유’를 학습 단원으로 하여 전체 3차시 수업으로 구성하고 1차시에는 ‘만큼’의 비교표현을, 2차시에는 ‘처럼’, ‘같이’의 비교표현을 교수 학습하고, 3차시에는 ‘만큼’과 ‘처럼’, ‘같이’의 비유표현과 관용적인 비유표현을 교수 학습하는 것으로 하였다. ‘처럼’과 ‘같이’는 의미, 용법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처럼’의 교수 학습 안을 제시하면서 ‘같이’를 같은 의미와 용법을 갖는 유의어로 교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각 교수안은 ‘도입→제시→연습→활용→마무리’의 단계에 따라 구성하였고,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원리에 입각하여 학습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두고 언어의 네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 활동을 구성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어 교육의 범주 안에서의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에도 한국어 교육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의 면에서는 미흡하였다. 앞으로 ‘한국어 교육’에 관한 많은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본 연구를 맺는다.



【참 고 문 헌】

- 경희대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2), 『한국어』, 경희대학교 출판국.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0), 『재미있는 한국어 1-6』, 교보문고.
- 고창수(2007), 『한국어의 접사체계』, 한성대학교출판부.
- 곽지영 외(2007),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커뮤니케이션북스.
- 국제한국어교육학회(2010), 『한국어 교수법』, 형설출판사.
- 김민지(2012), “한국어 보조사 ‘는’의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모(1990), “국어 건준말 연구”, 『한글』, 한글학회, pp34-43.
- 나은미(2000), “현대국어 대비조사의 의미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_____(2011), “‘-만큼’과 ‘-처럼’의 의미 특성과 비교·비유 표현”, 『한국어의 미학』, 한국어의미학회, pp.109-130.
- 박주현(2011), “한국어 교육을 위한 보조사의 양태성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봉자(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 도서출판 하우.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0), 『한국어 1-5』, 문진미디어.
- 성광수·박희숙(1979), “국어 특수 조사에 대한 구문·의미론적 고찰”, 『관동대학교 논문집 7-1』, 관동대학교, pp.25-50 .
- 신보라(2012),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특수조사 교육 방안”,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7), 『연세한국어 1-6』, 연세대학교 출판부.
- 오경숙(2004), “‘만큼’ 비교구문과 ‘처럼’ 비교구문의 이질성”, 『한국어 의미학』, 한국어의미학회.
- _____(2005), “비교구문과 비유 의미”, 『시학과 언어학』, 시학과언어학회, 제10호 pp.311-329.
- _____(2010), 『한국어의 비교 구문 연구』, 박이정.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0), 『말이 트이는 한국어 I-V』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
국어학회, pp119-154.
- 임삼미(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보조사’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룡(2004), 『국어 의미론』 , 탑출판사.
- 임채훈(2002), “국어 비유 구문의 의미 연구”, 『한국어 의미학』 , 한국어의미
학회, pp209-226.
- 정인수(1999), “국어 동등 비교 형용사 구문의 의미연구”, 『현대문법연구』 ,현
대문법학회, pp147-166.
- 정혜(2012),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보조사의 교육 내용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미(2009), “파키스탄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 · 학습 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양(2012), “한국어 보조사에 대한 교수 방안”,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신인(2010), “텍스트 기반 보조사 교육 내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길중(1998), “비교와 비유의 의미”, 『한국어학』 , 한국어학회, 7권
pp321-343.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ABSTRACT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of auxiliary propositional particles of the Korean language.

-focusing on ‘mankeum, cheoreom, kachi’-

Han, Song Yoo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effective ways to teach and learn words such as ‘mankeum, cheoreom, kachi’ with foreigners who are learning Korean.

Among the auxiliary propositional particles in the Korean language, ‘mankeum, cheoreom, kachi’ are used in expressing equivalent comparisons and are sometimes used in figurative expressions. In this respect, this study classifies these particles in one category looking a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it aims so that such characteristics can be effectively taught to and learned by foreigners learning Korean to allow them to apply these learnings in real life.

To achieve this, in chapter two, the study defines the meaning of comparison and figure of speech and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ways in which ‘mankeum, cheoreom, kachi’ are used in expressing comparisons by dividing them into items such as semantic characteristics of the antecedent wor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the predicate, coexistence of degree adverb, and ambiguity, as well as

considering use of figurative expressions.

In chapter three, the study reviews the teaching materials for the Korean language at five universities in Korea (Kyunghee University, Korea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and Ewha Womans Univesity), looking at how they suggest the use of 'mankeum', 'cheoreom' and 'kachi'. It focuses on identifying whether the textbooks contain appropriate contents according to the level of difficulty, how the contents are presented, whether the explanations are appropriate and if the exercise questions allow the learners to apply such learnings by reflecting in real conversations.

In chapter four,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mankeum', 'cheoreom' and 'kachi' are suggested, and considering 'the frequency of the use in everyday life' and 'the level of difficulty', which are the standards of classifying in the grammatical items, this study suggests that since the words 'mankeum', 'cheoreom' and 'kachi' contain comparative and figurative speech, they should be presented in the latter part of the novice level (second level) so that their mean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an be much more effectively taught and learned.

With the 'comparison' and 'figure of speech' as a lesson unit, the class should be composed in three folds designing the first session to learn the comparative expression of 'mankeum', the comparative expression of 'cheoreom' and 'kachi' in the second session, and the figure of speech expression of 'mankeum', 'cheoreom' and 'kachi' in the third session.

Because 'cheoreom' and 'kachi' are similar in their meanings and the usage, this study suggests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for 'cheoreom' and teaching the term 'kachi' as a synonym for 'cheoreom' that has the same meaning and the usage.

In chapter five, it summaries and discusses the limits of this study.

【Key Words】 Korean auxiliary propositional particle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mankeum, cheoreom, kachi, comparison, figure of speech

